『토지』 가족 서사의 확대, 능동적 공동체 만들기

이덕화*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서사의 지향점
3. 가족 서사에서의 장연학의 역할
4. 만들어가는 능동적 공동체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토지』의 서사는 작가의 생명사상에 의한 능동적인 생명체의 구현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 국가나 민족이 서로서로 떨어져 기능하는 부분 집합들을 모으는 추상적 통일체이듯이 서사구조 역시 개인의 삶의 존재 양식을 통합하는 추상적 통일체이다. 서사구조에서 추상적 통일체는 주인공이 없거나, 미확정적인 이야기, 열린 서사구조로서 나타나지만, 『토지』에서는 욕망하는 생명체로서의 개인의 삶의 존재방식을 민족적인 것으로 소환하여 여기에 하나의 전체, 생명성을 통하여 민족을 내재화한다. 개인은 욕망하는 주체이면서 욕망의 대상이다.

첫 번째 서사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인공이 없는 서사구조이다. 주인공이 없다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 나름의 한을 쌓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고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 구조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인물들의 존재방식을 서술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서사 방식을 많이

* 평택대학교 교수

벗어나 있다. 서사의 긴박한 순간에 갑자기 이야기가 잘린 것처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것은 다양한 삶의 존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삶은 필연적인 운명보다는 우연에 의해서 조합되어 그것이 필연적인 운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사구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주로 역사서술이나 독립운동을 서술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물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약한 생소한 인물들이 일정한 맥락이나 필연성 없이 나타나 의병운동이라든가, 형평사운동, 계명회 사건, 또 다양한 독립운동과 연계시키고 있다. 등장인물들을 끈질기게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소환하는 것은 이는 한 개인 생명의 존엄성은 공동체를 통하여 지킬 수 있음을 드러내는 작가의식의 반영이다.

『토지』는 다양한 개인적 존재양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심인물인 서희와 최참판가를 통하여 혹은 대리인 장연학을 통하여 민족공동체의 비젼을 제시한다. 모든 이웃을 혈연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이런 마음을 민족공동체까지 확대, 돌봄의 미학을 보여준다. 즉『토지』의 다른 서사적 의도와 함께 작가는 서희를 통해서 무한포용의 모성적 세계, 전 우주적 해한상생(解恨相生)의 세계를 이루려는 서사적 의도를 보여준다. 이런 모성포용적 세계는 서사구조에서도 열린 구조와 다양한 인물 구도를 통해 드러난다.

작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일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토지』에서 동학운동에서 의병 활동, 민주에서의 갖가지의 독립운동이 제시되는 것은 능동적인 역사,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민족사의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은 돈 있고, 더 힘있는 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고루 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라도 버티고 살아남도록 도와야 함을 서희나 장연학을 통해 이루어낸다.

핵심어 : 가족 서사, 생명사상, 한(恨), 민족공동체, 능동적 공동체

1. 들어가는 말

『토지』의 주제로 거론되는 역사성, 그 역사 아래 민족 운동, 민족정신, 농민의 일상, 농민의 현실, 민족의 풍습, 민족 고유의 한과 해한, 비극적 운명, 생명사상, 가족 중심주의, 가문주의 등등 실로 다양하다. 물론 어떤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16권 이상의 방대한 대하소설[1]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서사 내용 또한 풍부하다.

『토지』의 연구 방향 또한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완간되기 전 1,2부만으로도 연구논문이 나오기 시작해서 한, 생명사상, 운명, 윤리, 역사적 소설로서의 『토지』를 연구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2] 최근으로 갈수록 연구 양상이 다양해져 『토지』에 나타난 악(惡)의 상징연구[3], 『토지』와 관련된 지역성 연구와 『토지』와 관련 문화콘텐츠 논문도 나오고 있다.[4] 그러나 막상 『토지』 연구에서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

1) 권수는 출판사에 따라 다르다. 나남출판사는 16권, 솔출판사와 마로니에 북스는 20권이다.
2) 이에 관한 논문은 많은 논문에서 정리되고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3)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惡)의 상징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 최유희, 「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초점 연구-박경리 소설 『토지』와 1987년 KBS 드라마<토지>를 대상으로」, 『한국문예창작』 제7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최유희, 「만화 <토지>의 서사 변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이상진, 「『토지』의 평사리 지역 형상화와 서사적 의미」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2005., 2015. 봄 『토지』 학회 학술대회의 주제 역시 「『토지』의 공간과 지역문화」였다. 기조발제로 김종회, 「『토지』의 공간과 동 시대 수용의 방향성」, 박상민, 조윤아, 「『토지』의 공간과 서사적 문화지원」, 윤철홍,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진주지역 형평사운동」, 최미진, 「장소성의 역적과 문화의 표류」, 권우리야, 「『토지』에 나타난 대칭성과 비대칭성」.

는 그렇게 많지 않다. 박경리 문학 전체를 다루는 논문에서만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토지』에서 가족 서사를 따로 단독으로 연구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5] 限에 관한 연구라든가, 생명사상을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가족주의에 대한 부분적인 인식만을 보여준 뿐 『토지』를 관통하는 중심 의식으로 가족주의를 포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조윤아는 『토지』의 생명사상적 변모를 추적하는 논문[6]에서 『토지』에는 가족주의를 지향하는 정신과 그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려는 이중적인 정신이 포괄되어 있지만 그것은 동일하게 개인의 존엄성 확보에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즉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주의를 고수하려고 하는 한편 개인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가족주의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토지』에서 작가가 드러내고자하는 하나의 거룩한 생명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개념을 너무 축소시키고 있다. 부분적으로 가족 서사를 다루는 다른 논문에서도 『토지』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가족 서사가 어떻게 민족적 공동체와 연계시키고 있는지를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토지』는 일본의 침탈이 시작되는 구한말에서 해방까지의 텍스트 시간 안에 가장 중심있게 다루어지는 독립 운동이 가족 서사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분석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토지』는 가족의 문제가 제기되는 소설이다. 최참판가라는 불행한 가족을 비롯, 그 주변의 인물들은 대개 가족 관계 속에서 대 잇기의 문제나 가족 내의 불화, 여성문제 등 가족지키기의 욕망이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토지』는 단순히 최참판의 흥망성쇠를 다룬 작품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한에 의한 삶의 존재 방식을 통해서 드러

5) 박경리 연구에서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이금란, 「가족 서사로 본 박경리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 1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6) 조윤아, 「박경리 『토지』의 생명사상적 변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나는 가족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가족의 구성원인 그 개인 개인을 독립 운동에 소환하여 민족공동체에 접합시킴으로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능동적 공동체를 이루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민족에 대한 비젼까지 제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토지』를 역사소설의 한 형태인 가족사 소설로 보고 논의를 시작한다. 김치수가 지적한 것처럼 가족의 중심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에 의해서 사건이 추동되고 해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작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7]그러나 가족사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한을 함께 짊어지고 민족적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확대가족 개념으로 민족적 비젼을 제시하는 능동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작품으로 보고자 한다. [8]『토지』는 박경리의 작가 생활을 마무리하는 대작이라는 의미에서나, 우리 민족 공동체의 비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총체적 결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작가의 그런 성과에는 69년에 시작한 연재가 92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까지 격동적인 사회적 변화도 있었지만, 글쓰기를 통한 작가 의식의 고양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작가는 'Q씨에게'라는 가상의 대상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일상에 부딪치는 문제와 의식을 성찰하는 짧은 글을 써왔다. 그것을 묶은 책이 400페이지에 달한다. 거기에는 작가의 모든 의식을 드려다 볼 수 있어 연구자에게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책에는 삶이나 작품, 자기 자신에게까지 치열하게 살아 온 작가 정신이 깃들어 있다. 치열한 작가 정신에 의한 결정체가 바로『토지』라고 할 수 있다.『토지』1부의 집필을 마치고 쓴 서문과『Q씨에게』책의 내용 중의 한 부분을 보자 .

---

7) 김치수,『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47~48쪽.

8) 김치수는『토지』는 지금까지의 한국 소설에 대한 어떤 반성을 끊임없이 동반하고 있으며 그 반성을 통해서 소설이 갖는 총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초기의 단편들에서 보여주는 개인의 차원에서『토지』에 이르러 주제의 발전적인 종합으로 보고 있다. 김치수,「비극(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한(恨)」,『朴景利와 李淸俊』, 민음사. 1982. 19쪽, 33쪽.

> 글을 쓰지 않는 내 삶의 터전은 아무 곳에도 없었다. 목숨이 있는 이상 나는 또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보름 안에 퇴원한 그날부터 가슴에 붕대를 감은 채『토지』의 원고를 썼던 것이다....내게 있어서 삶과 문학은 밀착되어 떨어질 줄 모르는, 징그러운 雙頭兒였더란 말인가.

> 치졸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문학은 내 인생의 일부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죽음의 나락도 애정의 빼저림도 증오의 불길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행동의 필요를 느끼는 한 나는 죽는 날까지 글을 쓸 것입니다. 문학을 위한 문학이라면 일 년에 열두 번 살아나는 것 같은 고역을 나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9)

위의 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생을 살아왔고, 작품과 함께 사유하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치열한 격투를 벌여 온 것이다. 암에 대한 격투와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오는 절대 고독을 작품을 쓰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 고양과 더불어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 작품에 대한 작가의 이런 치열한 의식은 작품을 쓰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에서 민족공동체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확대된다. 그 모든 것이『토지』에 집결되어 나타난다.

2. 서사의 지향점

『토지』의 서사적 구조는 농민들을 비롯한 민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작은 일상적 사건들을 묘사하는 부분과 독립운동을 서술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부분의 배경서사를 이루는

9) 박경리,「회원을 꿈꾸며」,『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164쪽.

구한말의 동학 운동에서 의병운동, 일제하의 시기별 독립운동 서술은 농민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내밀한 삶을 들여다보는 내부 묘사를 통해 보여준다.

『토지』의 서사구조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족의 독립운동이다. 이것은 조정래의 논문, 민족사적 거대구조와 개인적 시간이라는 내부구조의 분석에서 개인적 시간의 연장이 민족사적 거대구조와 맞닿아있다는 논점과 동궤에 있다.[10] 작품의 서두에서 최참판가의 몰락이 직접적으로는 최치수와 윤씨 부인의 죽음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그로 인한 조준구의 재산 탈취는 일본의 침탈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은 작품의 지향하는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또 김훈장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조준구를 공격한 것도 조준구의 뒷배경으로 일본 경찰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작품 속에 대부분의 인물이 독립운동과 연계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 심지어 기생으로 지내다 자신의 한을 극복하지 못해 자살하는 봉순이조차 독립운동가인 서의돈, 이상현과 관계 맺음으로서 연계를 가지고 있다. 또 가문지키기와 토지 찾기에 연연했던 서희마저 길상이 독립운동에 뛰어드는 3부 이후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길상이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둘째 아들마저 학생 운동에 참여하자 서희는 자신 가족의 안위와 독립운동가들의 생계 문제를 장연학을 매개로 조력자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독립운동에 일조하는 인물이다.

독립운동은 평사리를 떠난 3.4.5부에 가서 공간과 인물을 확장하면서 전개된다. 평사리, 하얼빈, 훈춘, 연해주, 연추, 진주, 평사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독립운동 서사는 이어진다. 또 인물들 역시 새롭게 등장하고, 세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관여한다. 수많은 인물의 창조와 필연성 없는 관계맺음을 통하여 그래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은 당위성을 가지고 민족을 소환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사적 사건의 구체적 형상화가 아닌 서술자

10) 조정래, 「생존의 원리와 역사성」,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17~43쪽.

의 직접적 언술이나 후일담 형식으로 인물들의 대화, 인물들의 관념이나 의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서술로 주석적이고 설명적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민초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농민들과 관수나 강쇠 같은 민초들의 삶과 긴밀히 연관시키고 있다. 이런 연계를 통하여 그들 각자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는 작가의 서술적 전략에 의한 것이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이나 독립운동을 최참판가나 농민들을 비롯한 민초들의 삶의 현실적인 규정력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유찬 역시 『토지』에서 역사적 사건은 대부분 작품 속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그 사건들과 연계되어 있는 조선 민초들의 고달픈 삶의 이야기가 서사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1] 중요한 것은 이런 민족적 배경이 되는 농민들이나 민초들의 삶과 어떻게 연계되고 현실적 규정력으로서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가이다. 여기에 최참판가의 서희와 길상이의 역할이 있고, 후반부에 장연학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중 서사구조의 체계로 인해 드러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사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인공이 없는 서사구조이다. 주인공이 없다는 것은 각 개인이 자기 나름의 한을 쌓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고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 구조이다. 천이두가 작품 전편에 일관하는 주인공이 없다[12]고 지적한 이후, 조정래 역시 장면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주 인물의 역할을 하다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체되면서, 전체로 보면 주인공이 없는 서사구조로 짜여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역시 『토지』를 1부에서 5부까지 구한말에서 해방 전까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심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공이 부재하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

서사구조의 첫 번째 특징은 『토지』에서는 주인공이 부재한다. 다르게 말

11)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토지』 비평집4』, 솔출판사, 1996, 185쪽.
12) 천이두, 「한의 여러 궤적들」, 『현대문학』 478, 현대문학, 1994. 10., 120쪽.

> 하면 소설의 중심인 주인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참판가 사람들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그들을 중심으로 서사적 구조가 펼쳐진다고 말한 필요가 없다. 사소한 인물까지도, 사소한 사물까지도 모두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란 이름 자체가 맥이 풀린다. 이들까지도 나름대로의 역사 속에서 움직인다. 그들의 일상은, 그들의 침묵은 어떤 서사적 중심에 예속되지 않은 채 그들의 생명의 결에 따라 이야기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토지』는 소설의 영역을 변화시키면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13)

『토지』에서의 개인적 실존 자체가 한을 낳는다는 의식은 인간은 누구나 한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상진이 '인물의 존재 방식'으로 분류한 다양한 항목은 그들의 나름대로 짊어지고 있는 한과 극복을 통한 개인의 삶의 존재방식이 다양함을 보여준 것이다. 14) 이런 작가 의식이 작품의 한 인물에 집중된 구조보다는 다양한 인물구조를 통해서 열린 구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기보다 모든 인물이 자기 삶의 중심인물이듯 개인 개인의 삶을 통하여 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삶을 제시하고자하는 의도로 발전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인 인물들의 존재방식을 서술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서사방식을 많이 벗어나 있다. 서사에서 이야기가 상승구조를 타면서 독자의 호기심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갑자기 이야기가 잘린 것처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 정현기는 독자에게는 미완성인 채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장면 장면이 마디 그 자체로서 말할 수 없는 매력과 재미를 지닌다고 했다.15) 이야기가 한 인물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다른 인물로, 한 사건의 이야기 전모를 드러내지

---

13) 김진석, 「소내(疏內)하는 한(恨)의 문학」, 『문예중앙』, 1995. 5., 212쪽.
14) 이상진, 「인물의 존재 방식으로 본 『토지』」 『『토지』 연구』, 앞의 책, 49쪽~173쪽.
15) 정현기, 「박경리의 『토지』 연구」, 『한과 삶』, 솔출판사, 1994, 281쪽.

않고 잘렸다가 몇 장이 지나서 잊을 만할 때 다시 인물들의 대화나 서술 속에서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난다. 다양한 연애 서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읽는 동안 반복적인 서술이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또 객관적인 행위나 사건보다는 대화와 생각, 상념 및 느낌을 통해 인물이 묘사되고 있다. 공적인 사건에 대한 행위와 사건은 생략되거나 절제 된 체, 논쟁이나 대화, 느낌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16]

『토지』에서는 번번이 독자들이 기대하는 기존의 서사구조 방식과는 다른 느닷없이 서사가 잘리는 구조는 인물의 주인공이 다양하게 각자의 한에 의한 존재방식과 마찬가지로 열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열린 구조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존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삶은 필연적인 운명보다는 우연에 의해서 조합되어 그것이 필연적인 운명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사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하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인물마다의 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좌우됨을 보여주는 서사구조이다. 또 일정한 기대치를 벗어나는 서사구조는 우리의 삶이 기대와는 달리 엇나가는 현실의 삶과 많이 닮아 있다.

세 번째는 주로 역사서술이나 독립운동을 서술한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인물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약한 생소한 인물들이 일정한 맥락이나 필연성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라든가, 의병운동이라든가, 형평사 운동, 계명회 사건, 또 다양한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 역시 인물들과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기적 연결고리나 필연성이 부족한 우연의 산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는 인물들을 끈질기게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끌어낸다.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는 과정은 생략된 채 그 사건들에 대한 개개인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응이나 그로 인한 개인들의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서사구조의 특징은, 전 봉건적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16) 김진석, 「소내(疏內)하는 한의 문학」, 위의 책. 219쪽.

과도기적 삶을 드러내는 서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로부터 억압된 삶과 나라를 잃은 민족적 비극 속에서 아무 것도 확정할 수 없는 민족의 공동의 심리가 형식으로 드러났다 할 수 있다. 과도기적 체계에서 모든 의미가 미확적정으로 미끌어져 내려가는 가운데 심리적 불안을 보여주는 형식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서희가 모든 가문의 재산을 조준구로부터 탈취당하고, 그것을 찾기까지는 분명한 목적을 통하여 서희의 행동이나 의식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모든 재산을 되돌려 받은 이후 최서희의 존재는 미약하게 최소한의 다른 사람의 대화 속에서나 등장한다. 1,2부에서 소작인들이나 하인들의 삶이 생생한 현장감을 가지고 전달되던 것과는 달리, 3부 이후에서는 장연학의 활동과 서희 차기 세대들의 연애담, 뚜렷한 행동이 없는 지식인들 사이의 토론이나,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논쟁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한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나 후일담으로 서술되고, 독립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의 토론으로 이어진다.[17]

이런 열린 서사구조는 작가의 생명사상에 의한 구조이다.[18] 국가나 민족이 서로서로 떨어져 기능하는 부분 집합들을 결합시키는 추상적 통일체이듯이[19] 서사구조 역시 개인의 삶의 존재 양식을 통합하는 추상적 통일체이다. 이것은 작가 의식의 반영으로 '생명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시간(縱)과 자리(橫), 혹은 공간이라는 엄염한 십자가 밑에서 만나고 이별하며 환희와 비애를 밟고 지나가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20] 이런 작가 의식은 서사구조에서 주인공이 없거나, 미확정적인 이야기, 열린 서사구조로

17) 임진영은 이에 대해 여러 민초들의 운명과 최참판가의 운명이 동일화될 때, 식민지 하의 민족이라는 당연한 일반 규정 속에서 그 운명 공동체적 성격만이 표나게 강조될 때,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매개를 필요치 않는다며, 인물들의 역사적 관계가 삶의 구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작가의 목소리가 그대로 실린 인물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고 서술했다. 「『토지』의 삶과 역사의식」, 『『토지』와 박경리 문학』, 위의 책, 76쪽.

18) 이상진, 「서사의 특성으로 본 『토지』」, 『『토지』 연구』, 월인, 1997, 175쪽.

19)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376쪽.

20) 박경리, 『토지』, 마로니에 북스, 5부5권, 20권, 241쪽.

나타나지만, 욕망하는 생명체로서의 개인의 삶의 존재방식을 민족적인 것으로 소환하여 여기에 하나의 전체, 생명성을 통하여 민족을 내재화한다. 개인은 욕망하는 주체이면서 욕망의 대상이다.

『토지』에서는 욕망에 따른 개인의 삶의 다양한 방식과 그들의 삶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역동적인 생명성이나 개인적 가족주의나 이기주의에 의해서 파멸하는 인물군상을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유찬은 중심적인 사건이 빠져나가버리고 나서도 작품이 생동하는 인물과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고 해석한다.[21] 삶의 역동성과 서사 구조를 확장하는 인물들은 가족으로부터 소외, 분리, 현실의 굴절을 통하여 독립 운동가, 혹은 예술가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욕망하는 생명체로서 존재방식을 드러낸다. 석이, 조병수, 관수를 비롯한 서희나 길상이, 용이, 영팔이, 장연학 같은 인물이다. 이들 중에 특히 서희의 대리인 장연학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과 민초들의 삶을 이어줌으로써 우리 민족 공동체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장연학을 통하여 서사구조가 가족 서사에서 민족 서사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토지』이전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관념적 고향으로부터 발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고향이 제시된다.

3. 가족 서사에서의 장연학의 역할

위의 서사구조에서 분석한대로 작품 속의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나름대로의 한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삶이 확장됨에 따라 가족 서사가 민족 서사로 뻗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민족 사사로 확장되는가를 보자. 이 작품에서 가족 구조에서 오는 원한으로 개인적 한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 배경을 면면히 살피면 모두 일본제국주의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것이다. 주요 인물이랄 수 있는 서희, 용이, 김훈장, 관수, 김환,

21) 최유찬, 앞의 글, 193쪽.

길상, 조준구, 조병수, 송장환, 한복이, 석이, 홍이, 양현, 영광이 대부분의 인물들은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어버이를 상실한 큰 설움을 배경으로 가족으로부터 온 각자의 한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물론 인물들 중에는 자신의 한을 예술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하는 가운데 극복되기도 한다. 나라를 잃은 큰 서러움을 가진 민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가련하게 생각하고 도우면서 서러움을 이겨나가는 가운데 한이 극복된다. 민족적 한을 가진 설움은 이웃에게 자신처럼 더욱 더 감정 이입하여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게 된다.[22] 이런 사적인 마음을 공적으로 감당하는 인물이 장연학이다.[23] 장연학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한을 가지지 않은 여유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도 작가가 의도한 전략일 것이다. 치밀하고 정확한 성품은 최판참가의 관리인으로서 일을 치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토지』의 1,2부는 최참판댁 윤씨부인과 서희를 중심으로 최참판댁의 몰락과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서사이다. 즉 1,2부는 최참판댁 몰락으로 인한 서희라는 인간의 한 맺기와 한 풀기 서사라고 할 수 있다. 1,2부에서 서희가 조준구로부터 빼앗긴 모든 재산을 도로 찾은 후 허망함에 빠지는 것은, 오직 몰락한 최참판댁의 명예와 재산을 되돌려 놓은 일이 서희의 그동안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서희는 1,2부에서는 조준구에게 빼앗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간도에서 친일마저 마다하고, 오직 가문 세우기와 지키기에 필요한 길상과의 결혼을 통해서 혈연과 가문에 집착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김은경은『토지』작품 연구에서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가치를 절대화하는 인물군과 가치를 상대화하여 굴절하는 인물군으로 나누며 서희는 최참판가의 가산은 회복하였지만, 길상과의 결혼으

22) 이에 관해서는 서현주,『박경리 토지와 윤리적 주체』참고」역락. 2014.

23) 장연학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공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나라를 잃은 일본 제국주의의 하에서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최참판가의 대리인으로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공적이라는 말을 사용.

로 안게 된 신분으로 오는 한으로 인해 굴절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다.[24] 김은경의 논리로 보면 최서희는 길상과의 결혼으로 오는 굴절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로 이웃과 민족에 접속함으로써 삶의 지평을 확대한다고 할 수 있다. 3,4,5부에서 이 역할을 바로 장연학이 대신 맡아서 하는 것이다.

1,2부에서 드러나는 서희의 소망이 가문지키기와 재산의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면, 용이나 영팔의 소망은 옛 고향의 정취를 되찾는 것이다. 용이는 간도에서 간간이 평사리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을 아련한 아름다운 회상으로 떠올리는 장면들이 제시된다. 영팔이는 간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간도 농촌 마을로 들어가고 용이 역시 뒤따라간다. 서사에서는 두 사람을 통하여 막연히 예전의 서로 부대끼고 함께 했던 평사리 마을의 공동체를 그리워하는 정서를 보여준다. 이런 두 사람의 평사리의 마을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은 3,4,5부에 와서는 최서희의 소망이 되면서 그 소망을 장연학을 통해서 이루어낸다.

3.4,5부에서 최서희나 길상은 소극적인 역할만 할뿐 장연학이 그 집안의 모든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3,4,5부에서 장연학을 내세워, 임이네의 탐욕으로부터 노후의 힘든 삶을 사는 용이나, 또 독립운동에 가담해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석이네 가족, 송관수의 가족 등과 같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여력을 다한다. 그 이후 서사를 이끄는 최참판댁의 중심인물은 서희도 길상이도 아니다. 장연학이라는 재산 관리인이면서 서희와 길상의 대리인으로서의 장연학이다. 장연학은 3부에 등장해 5부까지 꾸준히 등장하다 5부 제일 마지막 해방의 기쁨에 취해 만세를 부르는 마지막 서사를 장식하는 인물이다.

> “어머니!”
> 양현은 입술을 떨었다. 몸도 떨었다. 말이 쉬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

24) 김은경, 「박경리 문학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91쪽.

"어머니! 이, 일본이 항복을 했다 합니다.!"

"뭐라 했느냐?"

"일본이 일본이 말예요. 항복을, 천왕이 방송을 했다합니다."

서희는 해당화 가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정말이냐...."

속삭이듯 물었다. 그 순간 서희는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다음 순간 모녀는 부등켜 안았다. 이 때 나루터에서는 읍내 갔다가 나룻배에서 내린 장연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아 독립만세! 사람들아! 만세다!"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 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25)

위의 인용문이 『토지』의 전체의 마지막이면서 5부의 마지막 장면이다. 작가의 『토지』 전체의 용의주도한 서술전략으로 보면, 이 마지막 장면 역시 의도적인 서술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장연학은 3.4.5부에서 길상이나 서희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장연학에 주목한 논문은 보이지 않는다. 인물의 존재방식으로 『토지』의 의미를 분석한 이상진조차 장연학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6) 필자 역시 장연학의 인물이 크게 부각된 것은 이번 『토지』를 다시 읽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3부 이후 장연학의 역할을 분석해보면, 『토지』 의 주요한 주제의 하나

25) 박경리, 『토지』, 마로니에 북스, 5부5권, 20권, 415~416쪽.

26)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1999, 77쪽, 이상진은 인물을 분리하면서 개인은 개인대로 작중인물이 되었다가 어느 새 한 떼의 무리가 되어 익명화된다며, 강청댁, 임이네를 비롯한 마실꾼, 혹은 수다쟁이, 이상현, 임명빈을 비롯한 지식인 집단, 용이, 영팔이를 비롯한 농꾼 집단으로 나눈다. 여기에 장연학은 마실꾼도, 지식인도, 농꾼도 아닌 집단에 소속되기에는 애매한 존재이다. 장연학은 가족과 가족을 이어 민족공동체의 비젼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인 생명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인류가 이루어야 할 삶의 형태에 대한 가치있는 비젼 제시를 작품의 주요가치로 분석한 최유찬과 동궤에 있는 것이다.[27] 작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 한을 지니고 사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즉 생존 자체가 한을 키우고 한을 푸는 작업이다. 최참판가 뿐만 아니라 최참판가의 가계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의 예외 없이 무슨 업보와도 같이 한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다.

> "산에 맛을 딜이고 한번 인이 박혀버리면 산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시쳇말로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 것이다. 그 말인데 신선이 무어이겠소? 소위 자유인. 풀려난 사람 아니겠소이까? 어디 사람뿐이겠소? 천지만물 생명 있는 것. 그 모두가 풀려나면 나로부터 풀려나는 게요. 수십 년 기나긴 성상 소지감 선생께서 헤메고 다닌 것은 무슨 까닭이오? 골육에서 풀려나고자, 윤리도덕에서 풀려나고자 한 몸부림 아니외까?"[28]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골육이라는 가족과 윤리도덕으로부터도 해탈한 현실을 초극한 인물, 주갑이, 윤보 같은 인물들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생명성을 극대화하지만 인간은 가족이나 사회, 국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최참판가의 최서희가 자신의 환국이 윤국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혈연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이 장연학을 통해서 실현된다,

작가는 작품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 '마음도 생활도 온통 가난했었다'[29]라는 말로 표현했듯이 자신의 불합리한 출생에 대한 열등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전쟁으로 인한 상흔, 어머니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삶에 대한 객관적 거리를 지킬 수

27)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솔출판사. 1996. 14쪽.
28) 박경리, 『토지』, 마로니에북스, 15권, 179~180쪽.
29) 박경리,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141쪽.

없는 상태였다. 즉 자신과 가족 추스르기에 급급, 주위를 돌아 볼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표류도』 발표 이후 박경리의 경제적인 생활은 안정된다.

> 아무튼 『표류도』가 세상에 나간 후 나는 차츰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사에서 연재 교섭이 있어 『내 마음은 호수』를 쓰게 되었고, 여원사의 요청으로 『성녀와 마녀』를 연재하게 되었다.
>
> (중략)
>
> 무대는 화려하나 무대 뒤의 쓸쓸하고 착잡한 바람을 받고 서있는 나, 다 뿌리치고 어디론지 도망치고 싶은 충격, 이 상태에서 터지지 않았던 것, 파괴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가족이라는 너무나 강한 지주가 있었기 때문이다.[30]

위의 인용문은 박경리 의식의 축약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인용문에서 『토지』의 서희가 간도로 떠나기 전 잃은 땅과 집을 다 찾은 후 삶의 허망함을 느낀 것과 같은 허망함을 볼 수 있다. 그런 허망함을 구원해 준 것은 가족이었었다는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최후의 보루, 가족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 『토지』의 서사 목적 중의 하나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작가의 심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또 하나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폭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에 '터지지 않았던 것, 파괴하지 못했던' 한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외부 환경이 자신에 대한 관대함과 친밀함으로 다가오면서 좀 더 외부 환경에 너그러워졌음에도 자신의 심리 내부에 파고드는 심리적 허망함을 통해서 인간 실존 자체에 대한 본질적 물음, 인간의 생존 자체가 한의 삶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런 인식에 의해서 『토지』에서는 한의 구조가 다양하게 직조된다. '가족'을 기본항으로 하는 『토지』는 최참판가의 '가족' 훼손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출발하여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31] 이것은 다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최

30) 박경리, 『Q씨에게』, 위의 책. 144~145쪽.
31)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 (2008,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3쪽. 김은경은

치수의 살해범 김평산의 아들 한복은, 아버지는 처형당하고 어머니는 자살하고 형은 가출함으로 가족의 해체 속에서 한을 끌어안은 인물이다. 가족을 통한 훼손된 삶이 그 아들 영호가 광주 학생사건으로 구속되자 진정한 평사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동네 사람들은 한복을 마을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끌어 앉음으로서 한복이 한을 극복하지만, 또 그동안 가족으로 인해 잃은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다.

3,4,5부에 와서는 장연학의 역할을 통해 가족을 지키면서도 그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민족 공동체 형성까지 이어지게 한다. 길상이 일본제국주의라는 민족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 들고, 서희가 환국이 윤국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동안 장연학을 통해 이웃의 타자들을 거두고 보살피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서희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장연학에게 이어져 장연학은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장연학을 통해 가족의 개념은 한 가족으로 머무르지 않고 함께 하는 이웃으로 확대되고 민족으로 이어진다.

> 사람 모두가, 역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김개주도 김환도, 역사의 산물이며 그 오랜 역 사를 극복하려다가 간 사람이다.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강자는 극복되어야 한다. 약자의 눈물을 거두기 위하여, 평등하기 위하여, 강국도 극복되어야 한다. 약소국의 참상을 씻기 위하여, 국가와 국 가가 평등하기 위하여, 일본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한다. 32)

위의 인용문은 김개주의 생애에 감동을 받고 독립운동에 뛰어는 든 길상이 의식의 단면이다.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서술되는 역사적 사건들도 일본 제국주의 침탈 하에 있는 약소민족인 우리 민족이 역사를 극복하기

'『토지』의 기본주제는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바, 가족은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의 주요 갈등상황은 가족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가족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32) 박경리, 『토지』, 마로니에 북스. 14권. 297쪽.

위해서는 독립운동은 지속되어야 함을 당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또 이 인용문을 빌어서 보면, 강자의 편에 서 있는 최판판가에서 불행하고 헐벗고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독립운동가 가족을 비롯한 이웃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논리이다. 작가가 한국인의 전통신앙인 무속신앙의 범신론적 태도에 모든 산천초목이 다 영성이 있고 공생 공존한다는 가치관과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가치관이 담겨있음을 역설[33]한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돌봄으로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민족적 비젼으로 제시되고 있다.

『토지』 전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현실에서 우리 민족적인 대의는 일본 제국주의로 부터의 독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에서의 전체 서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한 독립운동이 주요 흐름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누구나 다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는 없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남은 가족들의 삶은 병행되어야 한다. 『토지』의 큰 서사구조는 바로 독립운동군과 그 가족들의 삶이라고 할 수있다. 그 두 삶의 구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연학이다. 가장이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은 생계가 막연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 최참판댁의 서희의 막강한 재력에 의지한 장연학의 역할이 그 돌봄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다. 독립운동이라는 공동체의 큰 비젼을 위해서 가족을 챙길 여력이 없는 독립운동가를 위해서 장역학의 역할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4. 만들어가는 능동적 공동체

작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일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33) 박경리, 정현기, 설성경, 「한국문학의 전통적 맥잇기」, 『현대문학』. 1994.10. 71쪽.

인 대응,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토지』에서 동학운동에서 의병 활동, 만주에서의 갖가지의 독립운동이 제시되는 것은 능동적인 역사,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민족사의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은 돈 있고, 더 힘있는 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고루 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라도 버티고 살아남도록 도와야 함을 서희나 장연학을 통해 이루어낸다.

『토지』에서 가족 개념은 서희 가족으로부터 서희가 위급할 때 생사를 같이 했고 간도에서 동거동락했던 용이, 영팔이, 또 조준구로부터 재산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준 석이네 가족 등의 평사리 동네 사람들, 더 확대되어 관수, 강쇠, 이동진, 이상현 가족, 명희 가족으로 공간과 지역을 넓혀가며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견딤으로써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의 각박한 현실을 버텨나간다. 이것은 가족의 확대 개념으로 해방 후의 우리 민족이 만들어 가야하는 능동적 공동체로 제시된다.

『토지』에서는 핍박받고 소외당한 불쌍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아끼고 의지하는 시큰할 정도의 아름다운 인정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다. 관수가 백정의 딸과 결혼, 의병활동에서 동학당 잔당의 중심인물로서, 또 독립운동과 형평사 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동안 관수 가족을 챙기는 것은 서희였다. 관수의 부인이지만 백정의 딸로서 갖은 천대를 받아야 했던 영선이를 장연학으로 하여금 물심양면으로 배려하게 한 것도, 관수의 아들 영광이 백정 아들이라 퇴학당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깡패들과 싸우다 다리를 다치자 환국이로 하여금 찾아가서 돌보아 주게 한 것도 바로 서희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국으로 하여금 영광을 물심양면으로 도우게 한다. 사당패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아버지가 병사하자 혼자가 된 몽치가 꿋꿋하게 떠돌이 생활을 견디어 낸 것도, 해도사나 소지감과 같은 이웃의 사랑이 없었으면 몽치의 강인하고 꿋꿋한 성정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지극한 애정은 가족 이상의 사랑이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온 몽치는 가족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다.

또 길여옥과 명희, 길여옥과 최상길의 관계 역시 아름답게 가족 이상의 사랑을 지속하는 관계이다. 명희의 남편 조용하가 명희와 시동생과의 관계를 의심, 자살을 결심하고 여옥에게 내려왔을 때 여옥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돌본다. 그리고 명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어 재기의 길을 걷도록 도운다. 그 후 여옥은 기독교 전도사로 일하며 기독교 반전 공작 운동에 참여 체포되어 영어의 몸이 된다. 그러자 옛 남편의 친구였던 최상길이 죽을 정도로 피폐한 상태로 출옥한 여옥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혼신의 힘으로 여옥의 건강을 챙겨주어 결국 건강을 되찾게 한다.

서희는 또 독립운동으로 젊었을 때부터 집을 떠난 이동진이나 3.1운동의 패배로 암담한 일제하의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아들 이상현조차 가족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못하자 그 가솔을 맡아서 시시때때로 곡식 등 일용한 양식을 지속적으로 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또 서희는 자신의 몸종으로 있던 봉순이의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길상이나 이상현으로부터 봉순이 버림받고 스스로의 한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봉순이를 자살하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았다. 또 그 후 봉순이가 죽은 후 남겨 둔 딸 양현을 서희는 친딸 이상으로 거둔다. 그것으로 환국의 아내, 며느리와 갈등까지 빚었지만 끝까지 양현의 편에 서서 양현을 돌본다.

길상이 독립운동으로 만주 지방에 머물자, 서희는 집안 관리인으로 장연학을 고용, 길상이 맡은 역할을 맡게 한다. 집안 관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으로 가솔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을 돌보는데 주력을 다하게 한다. 특히 3.1 운동에 가담했던 정 석이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 소식조차 끊고 가솔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자 장연학은 석이 어머니와 석이의 아이들, 성환이와 남희를 지극 정성으로 돌본다. 특히 남희는 집나간 엄마 양을례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일본군에게 강간을 당해 성병을 얻는다. 장연학은 남희의 성병을 다른 사람 모르게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것은 물론 어린 나이로 받은 그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 전력을 다한다.

한 때 최참판가와 관련 있었던 용이를 비롯한 소작인들은 물론 하인, 하인 식솔, 독립운동가의 가족들은 장연학의 보살핌 속에 일본 제국주의 하의 어려운 현실을 견디어 나간다.

> "그렇지요. 생명. 모든 생명은 존재하고 운동하는 한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 할 수 있겠지요. 풀잎 하나에도."
> "그렇다면 역사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배하는 건가?"
> "능동적인 공동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34]

> 다스린다 함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루 족하였는가 보살피는 일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며 취하고 버릴 것을 선택하는 일, 결국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백성과 더불어 이룩해가는 일인데, 정치이념이야 언제나 명쾌한 것 아닙니까? [35]

위의 두 인용문은 상현이 일본 유학 친구인 전윤경, 임명빈, 남천택이 더불어 시국 토론 중 나온 일부 대화이다. 작가는 3부 후반부부터는 독립운동가들이나 지식인 그룹과 오가타와 유인실의 토론을 통해 위의 인용문 같이, 역사, 민족주의, 일본의 민족성, 한국의 민족성, 한, 생명성, 문화, 문명 등 작품에 필요한 개념들을 토론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도 그 일부분으로서 이 두 인용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살아있는 생명, 능동적인 공동체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서희는 조준구로부터 모든 재산을 찬탈당하고, 간도로 탈출할 때는 모든 그동안의 기반은 다 잃고 오직 윤씨 할머니가 남기고 간 금괴와 김훈장을 비롯한 자신의 집에서 소작인을 지냈던 용이, 영팔이, 그리고 길상이 등이었다. 김훈장, 이상현을 빼고는 대부분이 소작인 하인이었다. 김훈장과 이상현과도 길상과의 결혼 문제로 다툰

34) 박경리, 『토지』, 위의 책, 13권, 386쪽.
35) 위의 책, 388쪽.

이후 모두 떠나갔다. 서희가 그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은 그들이었다. 길상이, 공노인 등, 자신의 토대 기반과 다른 민초에 토대를 둔 사람들이었다. 서희는 그들과의 폭넓은 교유로 그들은 타인들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아왔다. 용이와 영팔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주갑이를 받아들여 함께 지내며 같이 나누어 먹으며 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애틋해 하는 것을 보았다.

서희는 또 최참판가의 재산을 도로 찾은 후 환국이 윤국이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낀다. 그런 가족적인 사랑을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봉순이 딸 양현에게까지 확대한다. 용이가 쓰러진 이후 임이네의 뒤틀린 욕망에 시달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 하동 자신집의 방을 내주고 하인으로 하여금 돌보게 한다. 이것도 가족 이상의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것이 결국 고향이며 유토피아임을 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며 이루어나가야 하는 능동적 공동체, 우리의 유토피아다. 자신의 힘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은 장연학을 통해서 대리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3,4,5부의 서사의 중요한 인물로 장연학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자는 작가의식의 반영이다. 이는 김지하의 생명 사상의 한 부분이면서 박경리의 『토지』를 관통하는 핵심 의식인 생명 사상인 '가족 전체에게도 우주 생명이 있으며 가족 전체는 하나의 거룩한 생명공동체'[36]라는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 이전 박경리 작품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작품의 인물이 돌아가야 할 유토피아, 즉 관념 속의 고향과는 전혀 다른 능동적인 공동체,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현실적인 고향이다.

> 오랜 방랑을 끝내고 이제는 살 땅으로 돌아온 여행자처럼. 전쟁이 끝나면 온갖 것 다 버리고 산골에 가 서 살자고 그는 말했다. 싸리나무 울타리에

36) 김지하, 『생명』, 솔출판사. 1994. 34쪽.

> 초막을 짓고 꿀벌을 기르고, 토끼를 치고, 덫을 놓아 산짐승을 잡고, 감나무, 살구나무를 심고, 산나물, 송이, 머루, 산딸기는 얼마나 맛날 것이며, 솔잎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37]

위의 인용문은『시장과 전장』에서 지영이 남편이 전쟁 중 행방불명이 된 이후 남편을 회상하며 자신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묘사부분이다.『토지』이전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이런 고향이미지가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전쟁이라는 공포와 낯섦이 지배하는 폭력적 상황 속에서 벗어나 인간 본래의 원시적인 삶, 본래적인 삶에 대한 희구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단화되지 않고 자연과의 합일에 의해서 자기의 감성대로 살아가는『토지』에서 주갑이나 윤보와 같은 삶이다. 주갑이와 윤보의 삶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감성이 시키는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가족을 보살필 수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삶이 아닌 것처럼, 위의 고향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오직 관념 속의 고향일 뿐이다.

이런 작가의 발전은 그동안의 작가로서의 성공으로 자신감과 경제적인 여유로 그동안 자신의 한이 극복되었고, 장기간『토지』를 쓰면서 고심에 의한 의식의 확대와 민주주의 사회로의 현실적인 변화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토지』의 서사는 작가의 생명사상에 의한 능동적인 생명체의 구현에 지향점을 두고 있다.[38] 국가나 민족이 서로서로 떨어져 기능하는 부분

37) 박경리,『시장과 전장』, 마로니에 북스. 2013, 321쪽.
38) 이상진,「서사의 특성으로 본『토지』」,『『토지』연구』. 월인. 1997, 175쪽.

집합들을 결합시키는 추상적 통일체이듯이[39] 서사구조 역시 개인의 삶의 존재 양식을 통합하는 추상적 통일체이다. 서사구조에서 추상적 통일체는 주인공이 없거나, 미확정적인 이야기, 열린 서사구조로서 나타나지만, 『토지』에서는 욕망하는 생명체로서의 개인의 삶의 존재방식을 민족적인 것으로 소환하여 여기에 하나의 전체, 생명성을 통하여 민족을 내재화한다. 개인은 욕망하는 주체이면서 욕망의 대상이다.

『토지』는 다양한 개인적 존재양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중심인물인 서희와 최참판가를 통하여 혹은 대리인 장연학을 통하여 민족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한다. 서희가 홀홀단신이었기 때문에 최참판가의 몰락을 막을 수 없음에 비해, 또 홀홀단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조준구를 피해 간도로 옮길 때 자신의 몸종으로 자신을 돌보던 봉순이와 길상의 도움은 물론 의병을 일으켜 조준구를 공격했다 실패한 김훈장을 비롯한 이웃, 용이, 영팔이가 없었으면, 서희의 간도로의 탈출이 불가능했다. 간도에서 재산을 재축척하는 과정에서나 다시 하동의 최판판가의 재산을 도로 찾는 과정에서도 공노인이나 길상이 등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혈연가족이 없는 서희의 입장에서는 이웃이 절대적인 존재였고, 혈연가족보다 자신을 도와 준 이웃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으로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가난한 가족과 고통 받는 가족을 돌봄으로서 자신의 홀홀단신으로서의 한 갚음을 이룬 것이다. 서희의 혈연가족이 없는 홀홀단신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3,4,5부의 장연학의 등장은 이런 서희의 의식을 장연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작가의 서술전략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이웃을 혈연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이런 마음을 민족공동체까지 확대, 돌봄의 미학을 보여준다. 즉 『토지』의 다른 서사적 의도와 함께 작가는 서희를 통해서 무한포용의 모성적 세계, 전 우주적 해한상생(解恨相

39) 들뢰즈·가타리, 앞의 책, 376쪽.

生)의 세계를 이루려는 서사적 의도를 보여준다.[40] 이런 모성포용적 세계는 서사구조에서도 열린 구조와 다양한 인물 구도를 통해 드러난다.

작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생명체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할일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토지』에서 동학운동에서 의병 활동, 민주에서의 갖가지의 독립운동이 제시되는 것은 능동적인 역사,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민족사의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은 돈 있고, 더 힘있는 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고루 족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라도 버티고 살아남도록 도와야 함을 서희나 장연학을 통해 이루어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박경리,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박경리, 『토지』1~20, 마로니에 북스, 2012.
박경리, 『시장과 전장』, 마로니에 북스, 2013.

2. 단행본

김지하, 『생명』, 솔출판사. 1994. 34쪽.
김치수, 「비극 (悲劇)의 미학과 개인의 한(恨)」, 『朴景利와 李淸俊 』 민음사, 1982. 47-48쪽.
들뢰즈·가타리, 김재인 역, 『안티오이디프스』, 민음사. 1997. 376쪽.
박경리, 정현기, 설성경, 「한국문학의 전통적 맥잇기」, 『현대문학』. 1994. 10. 71쪽.

40) 정호웅, 「『토지』의 주제, 한, 생명, 대자대비」, 한국문학. 1995. 봄. 339-340쪽.

서현주, 『박경리 토지와 윤리적 주체』, 역락. 2014, 1~254쪽.

3. 논문

김진석, 소내(疏內)하는 한(恨)의 문학 , 『문예중앙』. 1995. 5. 219쪽.

김은경, 『박경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97,133쪽.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惡)의 상징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170쪽.

이금란, 「가족 서사로 본 박경리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 1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13~334쪽.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덕화, 「서술 의도에서 본 『토지』의 인물유형」.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123~161쪽.

이상진, 「『토지』의 평사리 지역 형상화와 서사적 의미 ,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2005, 262~286쪽.

이상진, 서사의 특성으로 본 『토지』 , 『『토지』 연구』. 월인. 1997. 77, 175쪽.

임진영, 「『토지』의 삶과 역사의식 ,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76쪽.

정현기, 박경리의 『토지』 연구」, 『한과 삶』. 솔출판사 1994, 281쪽.

정호웅, 『토지』의 주제, 한, 생명, 대자대비 , 『한국문학』. 1995. 봄. 339~340쪽.

조윤아, 「박경리 『토지』의 생명사상적 변모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162쪽.

조정래, 「생존의 원리와 역사성」, 『『토지』와 박경리 문학』. 솔출판사. 1996. 17~43쪽.

천이두, 한의 여러 궤적들 , 『현대문학』 478, 현대문학, 1994. 10., 120쪽.

최유찬, 『토지』를 읽는다」, 『『토지』 비평집4』. 솔출판사. 1996. 14, 193쪽.

최유희, 소설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초점 연구-박경리 소설 『토지』와

1987년 KBS 드라마<토지>를 대상으로」,『한국문예창작』제7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8, 164~189쪽.

최유희,「만화 <토지>의 서사 변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325~358쪽.

Abstract

Enpansion in Family Epic, the Active Community of *Toji*(Land)

Lee Duk-Hwa

Toji(Land) shows open narrative structure which is derived from the author's point of view towards life. As a nation or a national race is an abstract, unified identity, open narrative structure also unifies various individuals' lives into a story. Even there is no main character in the novel, or no definite ending of story, *Toji*(Land) shows how an individual life exists among his or her people in the same country showing desire to survive and shows how those lives show details of nation as a whole.

There are some important features in the narrative structure of *Toji*. First, there is no main character in the story which means that there are each individuals who have their own, different lives, each by each. Second, the way to tell story about characters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tyle. Stories jump on new stories when they were in the middle of urgent moments. This makes us understand how there are many different life styles and how they meet each other through coincidence. Third, the way to tell story about history and independence movement is also notable, since the historical events are absent from the story but shown how those individual took those historical incidents into their lives and changed by their circumstances.

Even though *Toji*(Land) can be told that there is no main character to show various individuals' lives, there are Seo Hi and

the Choi family, or Jang who showed the vision of Korean nation. By taking care of all neighbors, *Toji* showed how to love our own nation through Seo Hi's life and her maternal world. The author recognizes history as an active, living organism. That is why it is shown in her story that our Korean people should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o achieve our own independence as a nation, to recover our nation's history.

Key words : Family Epic, Point of View towards Life, Han(Resentment), Ethnic Community, Active Community

■ 본 논문은 2016년 3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4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